현역이냐 신인이냐 … 더민주·국민의당 경선부터 치열

더민주, 박혜자 재선 가도에 송갑석 도전

국민의당, 송기석·이건태·김재두 출사표

새누리당, 심판구 시당위원장 출마 예상

■ 누가 뛰나

4·13 총선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으로 야권이 분열하면서 지역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여야의 공천 방식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데다, 선거구 획정까지 늦어지면서 예비후보들의 애간장은 타들어가고 있지만, 대부분의 예비후보들은 이미 선거전에 뛰어들어 바닥 민심잡기에 올인하고 있는 상태다.

광주일보는 광주·전남지역 선거구를 뛰는 예비후보들의 주요 활동 내용과 정책 공약을 점검하고, 중간 판세 등을 분석하는 '20대 총선 표밭 현장'을 연재한다. 선거구 획정과 무관한 지역구부터 찾아간다.

〈편집자주〉

정당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국민의당	국민의당	국민의당
이름	**심판구**	**박혜자**	**송갑석**	**김재두**	**송기석**	**이건태**	**정용화**
나이	75	59	49	50	52	49	51
약력	·현) 광주시당 위원장 ·전) 반석산업개발 대표이사	·현) 국회의원 ·전) 호남대 교수	·현) 더민주 정책위 부회장 ·전) 전남대 총학생회장	·현) 국민의당 대변인 ·전) 김대중 정부 청와대 행정관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 ·현) 정당인	·현) 법률사무소 동민대표변호사 ·전) 의정부 지검 고양지청장	·현) 호남미래연대 이사장 ·현) 2015 광주U대회 조직위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혜자(59) 의원의 재선 도전에 맞서 전남대 총학생회장과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을 지낸 송갑석(49) (사)광주학교장의 치열한 경선이 예상된다.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영입 인물'로 꼽히는 송기석(53)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와 이건태(51) 변호사 그리고 이명박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정용화 예비후보, 천정배 의원과 신당 (가칭)국민회의 창당을 주도했다가 국민의당에 합류한 김재두(50) 당 대변인이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당 경선을 거친 뒤에는 양당 후보들의 치열한 본선 경쟁이 점쳐진다.

특히 이번 선거에 새롭게 정치권에 얼굴을 내민 진짜 정치 신인들이 '새인물 바람'을 일으킬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더불어민주당 1대 1경선 치러질 듯**=재선에 도전하는 박 의원은 지역 최대 현안인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특별법 개정과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을 '뚝심'있게 밀어 붙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초선임에도 당 최고위원과 시당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당내 활동도 두드러졌다.

또한,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들이 매년 신규 채용시 지방대학생을 35% 이상 채용하도록 하는 지역균형인재육성법을 제정해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을 수상하기도 하는 등 의정활동도 돋보였다는 평가다. 이밖에 상무소각장 대체시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예산 확보 등 국비확보에도 많은 기여를 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이같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주요 성과로 내세우면서 재선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박 의원에 맞서는 송 교장은 지방대 학생회장으로는 처음으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을 역임하며, 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해오다 5년2개월이라는 세월동안 수감되기도 한 인물이다.

1990년대 김종석·이인영 등 전대협 출신 선후배·동료들이 모두 국회에 진출했지만, 송 교장은 지역에서 기성정치권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패배의 쓴 맛을 봐왔다.

이후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폭넓게 해오며 장애청소년과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해방캠프', '숲 체험' '청소년 무진기행'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 등을 통해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사)광주학교를 운영하면서 전국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150여 차례의 '무등산 역사길' 프로그램을 진행해 광주의 정신과 역사를 전국에 널리 알리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의당 후보 경선 치열 전망**=국민의당은 후보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져놓은 상태다.

최근 임명된 김재두(50) 대변인은 서구갑 출마를 준비중이다.

구례 출신인 김 대변인은 1996년 새정치국민회의 상황실 행정부장으로 정치에 입문해 원내총무실 서무부장, 기획부장, 국회정책 연구위원, 청와대 행정관, 새천년민주당 부대변인, 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을 역임하는 등 지난 20년간 원내총무실과 대변인실을 비롯해 정당과 청와대, 국회 등에서 오랜 경험을 쌓았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 정부 시절 한화갑·박상천·정균환 원내총무 밑에서 국회 전략통으로 인정받았고 '방탄국회'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천정배 의원이 이끄는 국민회의 공보팀장으로 합류해 천 의원으로부터 '뉴DJ 적임자'라는 평을 듣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호남의 가치, 야당의 가치가 인정받는 정치를 하고 싶다"면서 "이번 총선을 발판으로 대선에서 정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간 쌓아온 역량과 지혜를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든 송기석 전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5기 출신으로 광주지법, 광주고법 등에서 근무하다 안철수 의원의 '호남 인재 영입 1호' 케이스로 국민의당에 입당했다.

송 예비후보는 지난 1981년 용공 누명을 쓴 광주 횃불회 재심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무죄를 선고하고 33년만에 명예회복을 시킴으로써 '사법부의 과오를 사죄한 판결'을 내린 양심있는 법조인으로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사회 양극화 해소 ▲광주 친환경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및 삼성전자 백색가전 이전 해소를 위한 광주 경제특구 지정 ▲대형 쇼핑몰과 지역 영세상인들의 상생 방안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울 계획이다.

영암 출신인 이건태 변호사도 국민의당 영입 케이스다. 이 변호사는 검찰 내 민생관련 법률 제정 전문가로 꼽힌다.

법무부 법무심의관 재직시 친권 자동부활 금지제인 일명 '최진실법(민법 개정안)'을 주도하기도 했다.

또한, 한우농가 보호를 위해 축사에 대한 건물등기가 가능하도록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을 추진하는 등 대표적 민생법안 제정에 큰 기여를 해왔다.

이 변호사는 "민생 정책 법안을 제정하는 데 기여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힌 뒤 "광주에서 정치를 할거면 광주의 중심에서 하고 싶었다. 그래서 서구갑을 선거구로 선택했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이명박(MB)정부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을 지낸 정용화(51) 호남미래연대 이사장도 국민의당에 합류해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했다. 정 예비후보는 서구갑 선거구에서만 3번째 출마다.

그는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후보로 출마했으며,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한나라당 광주시장 후보로 나섰었다. 이후 19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 옷을 벗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민주통합당 박혜자 의원에게 패배했다.

한편, 새누리당에선 심판구(75) 광주시당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더민주 박혜자-송갑석 리턴매치

국민의당 새인물 바람불까 관심

행정·금융·교통 중심지 … 신·구도심 개발 격차 해소 최대 현안

■ 관전포인트

더민주와 국민의당 후보로 누가 나설 것인지가 가장 관심사다.

더민주에서는 현역 의원의 재선 도전 가능 여부가, 국민의당에서는 새로운 인물들 간 어떤 후보의 경쟁력이 가장 높을 것인가가 주목되기 때문이다.

우선 더민주에서는 광주 현역의원 2명 중 한 명인 박혜자 의원이 경선에 나서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나머지 현역의원 한 명인 강기정(북구갑) 의원은 더민주 예비후보가 선거구에 사실상 없어 단수 공천 가능성이 크지만, 박 의원은 송갑석 예비후보와의 한판 승부를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현역 의원과 도전자가 경선을 벌이는 유일 선거구라는 점에서 더민주에서는 경선 '흥행'이 가능한 지역이다.

어떤 경선룰이 적용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박 의원에게는 현역 프리미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송 예비후보가 현역인 박 의원을 꺾고 본선에 진출하는 파란을 일으킬 경우 광주지역 선거판도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19대 총선에서도 맞붙었었다. 당시 두명 모두 민주통합당 후보로 나섰지만, 서구갑 선거구가 여성 전략공천 선거구로 정해지면서 송 후보가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패배했었다.

더민주에 맞설 국민의당 경선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민의당에서 영입한 법조인 출신인 송기석 예비후보와 이건태 예비후보의 '새인물 바람'이 경선에서 얼마나 작용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여기에 김재두 중앙당 대변인의 가세도 경선 판도를 흔들어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서구갑에서만 3번째 도전에 나서는 정용화 예비후보의 조직력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선거구 특징

광주 서구갑 선거구는 광주시청 등 주요 관광서와 금융기관 등이 밀집해 있는 광주의 행정·금융·업무·상업 중심지다. 특히 광천동 종합터미널이 등이 위치한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반면, 주거환경과 생활여건이 열악한 구 도심도 상당수 있어 신·구 도심간 개발 격차 해소 등이 지역 현안으로 꼽히고 있다. 인구수는 15만여명에 이르고, 앞선 지난 19대 총선 당시 유권자 숫자는 11만 8000여명이었다.

선거구 행정동은 양동, 양3동, 농성1·2동, 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화정1·2동, 동천동 등 11개 동이다. 또한, 백화점과 호남 최대의 전통시장인 양동시장이 공존해 광주지역 여론의 풍향계 역할을 하는 곳으로도 평가받고 있다.

서구갑 선거구의 주요 현안은 ▲광주 군 공항 이전 ▲상무소각장 이전 및 이전 부지 활용 ▲양동 등 구 도심 재생사업 등을 꼽을 수 있다.

서구갑 선거구는 지난 2004년 치러진 제17대 총선때 생겨났다. 상무 신도심이 조성되고 아파트 인구가 늘어나면서 서구 선거구가 갑과 을, 2개로 나뉘었다. 첫 국회의원 뱃지는 열린우리당 염동연 의원이 달았고, 이어 18대 총선에서는 통합민주당 조영택 의원이 당선됐다.

19대 총선에서는 현직인 더불어민주당 박혜자 의원이 당선되는 등 아직까지 재선 의원은 나오지 않은 선거구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의원
라식 vs 라섹
라식 수술
각막절편을 만들고 레이저로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통증이 적고 시력회복이 빠르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라섹 수술
각막 상피를 벗긴 후 레이저로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라식에 비해 통증이 다소 있고 시력회복 속도가 느리지만 충격과 안구건조증에 강한 수술 방법입니다
◎ 사람의 눈은 손가락의 지문처럼 모두 같지 않습니다. 때문에 각각의 눈에 맞는 다양한 수술이 가능한 시력교정전문병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스마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밝은광주안과의원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중-68156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새생명탄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시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